

##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의 모든 소리-속삭임

조용미

2015.12

소리의 거처는 어디일까. 소리가 사라지는 곳으로 따라가면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지연은 소리를 건져 올려 잘 말려두었다가 그 소리의 손길로 세상을 쓰다듬는 사람 같다. 소리를 다스리고 달래는 아름답고 착한 마녀 같기도 하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연과 나는 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소리가 있어, 소리라는 감각의 그 아득함 때문에, 소리라는 감각의 그 현묘함으로 인해, 남다른 소리에 대한 예민함과 편애 때문에 지연과 나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인 ‘웨더 리포트’를 들으며 그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알고 보니 지연은 마녀가 아니라 소리를 실험하고 탐구하고 발명하고 사유하는 성실한 학자나 시인에 가까운 사운드 아티스트다.

“나는 종종 작가들이 목소리가 없는 대상들에게도 관심을 갖는다면 더 흥미로워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은 목소리를 다루더라도 의미를 지운 소리-음색, 말투, 뉘앙스, 발화의 방식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증거 하지 않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 조금 다른 ■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에는 그의 작업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잘 나타나 있다. 작가가 주도하는 서사보다는 소리를 내는 언어 즉 증언이 아닌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 혹은 소리 차체의 울림이나 공간감, 배경, 색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도시생태계의 인공적이고 문화적인 소리들보다 도시생태계의 주변부나 도시-자연 그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떠도는, 혹은 미끄러지는 소리들과 자연생태계의 본원적이고 즉물적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들을 그의 그물망으로 건져내는 의미 있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시인이 아무리 관념이나 추상, 주관이 아닌 사물의 편에 서고자 해도 그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결국 언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리채집가인 그는 미끄러지고 사라지려는 자연의 언어를 왜곡하거나 의미로 덮어씌우지 않고 그대로 오롯하게 건져내어 우리 앞에 내놓는다. 지연은 우리에게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작업의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그가 소리를 건져올리기 위해 겪는 수고로움이 어떠한지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대체로 소리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보이기 때문에 듣는다. 몸으로 느껴지기에 듣게 되고 몸이 먼저 느낀 후에 듣는다. 가을에는 단풍든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에 미혹되어 소리를 듣지도 못하거나 ‘보게’ 되고, 겨울에는 살갓을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살얼음이 물 위에서 엉기는 소리나 멀리서 짹짹 갈라지는 강의 두꺼운 얼음소리도 ‘체감하게’ 된다.

소리에는 아주 여러 겹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집중하고, 궁구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깊이 사유하고, 문득 어떤 찰나의 순간을 잡아채야만 간파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들려오는 시계의 초침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 숨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침묵의 소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산들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꾸는 소리, 그 바람이 그리는 미세한 커브의 곁에 따라 나뭇잎들이 잎사귀의 한 면을 일제히 뒤집는 소리,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창가에 바싹 붙어 누워 밤에서 새벽까지 밤하늘의 별이 천천히 자리를 바꾸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지구의 자전이나 먼벌에서 운석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소리의 어지러움도 있다. 드넓은 바다에 있는 모래 한 알을 만져보는 것과 같은 소리의 신비다. 우리 몸의 영적인 감각이 그 순간들을 일깨우는 것일까. 그 순간들이 우리의 영혼으로 무연히 스며드는 것일까.

소리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의 영역과, 그 파장의 수도 없는 물결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숨은 장소들을 드나들어보아야 한다. 들리고 보이는 세상의 모든 소리마다 얼마나 많은 속삭임과 울림이 숨어 있는 것인가. 밤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작고 낮은 소리 한 조각, 흐르는 시간의 간지러운 속삭임, 먼데서 오고 있는 지각의 울림을 통한 비의 예감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우주적인 소리의 운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간혹 그 소리의 심연과 마주해야 한다.

감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듣는 귀가 아니라 소리를 어루만지는 귀를 가지고 싶다. 남들이 듣지 못 하는 것을 듣는 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귀 기울여 듣는 귀가 되고 싶다. 귀 기울인다는 것은 세상을 애뜻하게 내게로 불러들이는 것, 내가 사물들에게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이다. 많이 듣게 되면, 그 감각을 통해 세상과 조금 더 친근해지지만 대신 그 소리들 탓에 조금 더 아프게 된다. 소리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러기에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힘없고 가여운 존재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다.

웨더 리포트를 통해 지연이 건져 올린 소리들을 들으니 제주의 흙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당근 밭이나 양파 밭을 지나가면서 맡았던. 그리고 동네 앞이나 당집의 늙은 팽나무들을 마구 흔들어대는 바람소리도 떠올랐다. 파목과 발목을 오가는 빗소리에 내 방이 서서히 젖어버린 저녁이 있었다. 울리고, 스며들고, 번지고, 잠식하고, 달래고, 사라지는 소리의 풍경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 놀란 적도 있다. 말이 아닌 허밍은 풍경의 틈에 묘하게도 잘 스며들어 있었다.

“곤충의 소리도, 파도도, 모래알갱이도 한없이 많고 그 작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내가 다다를 수 없다.” 지연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발견한, 소리 없이 소리를 발굴하려 다니는 사운드 아티스트 김지연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나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어진다. 그의 ‘웨더 리포트’ 작업을 들으며 나도 소리를 통해 다시 내가 속한 이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형상을 부여해보고 싶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주적인 소리로 함께 묶여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 숨을 쉬고 소리 내어 움직인다. 죽은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 있고 다다를 수 없는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듣는다. 감각한다. 세상의 모든 소리, 신비하다.

웨더리포트 (aug-dec 2015, jeju)